

LG · SK, 카자흐 자원개발 참여

전경련, 양국간 자원 · 에너지 협력 강화 ... 인프라 시장도 개척

SK, LG, 코오롱 등을 포함한 재계가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의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시장 개척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수행한 경제사절단이 카자흐스탄과 이러닝(e-learning) 구축하고 오일탱커 건조, 조선소 · 철도 건설 등에 등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5월14일 밝혔다.

사절단은 5월12-13일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13일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수도 아스타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카림 마시모프 카자흐스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카자흐 <신성장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경제 사절단과 현지에서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 카자흐스탄 정부와 경제계 고위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하영봉 LG상사 사장, 김신배 SK C&C 부회장, 노영돈 현대중합상사 사장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 등도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재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공 인프라 개발 사업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동시에 석유 · 가스 자원 탐사 플랜트 건설과 주택 · 도로 등 인프라 건설, 금융산업 등에 더 많은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카자흐스탄은 국토면적 석유 매장량은 세계 9위, 가스는 1위, 우라늄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 부국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4>